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1 ~ 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자유 주제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는 오늘 급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먼저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지요? (잠시 기다렸다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입니다. 마치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듯합니다. ㉠ 우리가 저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저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책상에는 온갖 책과 옷이 널려 있고, 바닥에는 크고 작은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으며, 창틀이나 교실 뒤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 여러분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경제 용어인 ‘외부 효과’를 통해 그 원인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외부 효과’는 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치 않게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혜택을 주는 경우를 긍정적 외부 효과, 손해를 끼친 경우를 부정적 외부 효과로 구분합니다. 맛있는 빵집이 생기면 이웃의 편의점도 수익이 높아지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면 제조업 공장이 많아지면 매연이나 소음이 생겨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긍정적 외부 효과는 확대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제 주체에게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제 주체에게는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습니다. 이러한 외부 효과는 비단 경제 현상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엉망진창인 교실과 외부 효과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충 짐작하시겠지요? (청중의 반응을 보며)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키며 생활해 왔던 것입니다.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는 누군가의 행위는 우리 모두의 기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게 합니다. ㉣ 어디 그뿐입니까? 사물함까지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책상 위아래에 자신의 물건을 쌓아두면 지나다니는 친구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자신들의 물건을 교실 이곳저곳에 함부로 놓아두게 만듭니다.

㉤ 그렇다면 지금의 교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보며) 네, 잘 알고 있군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실에 부정적 외부 효과는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긍정적 외부 효과는 가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학급회에서 논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자유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낯선 용어를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②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야겠어.
- ③ 시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문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④ 제시할 정보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 ⑤ 문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청중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겠어.

2. ㉠ ~ ㉣에 나타난 발표자의 말하기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발표 내용이 청중의 평소 관심사임을 부각한다.
- ② ㉡: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의 경험을 환기시킨다.
- ③ ㉢: 청중의 반응이 상황에 맞지 않음을 강조한다.
- ④ ㉣: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한다.
- ⑤ ㉤: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시킨다.

3. <보기>는 학급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다. 위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생 1: 교실을 어지럽히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벌점 때문에 각자가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 2: 벌점을 주기보다 교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한 사람을 매주 학급회 시간에 투표로 뽑아, 청소를 일주일 쉬게 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3: 매달 환경 미화 심사를 하여 우수 학급에 시상하는 방안을 학교에 제안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 ① ‘학생 1’은 개인의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군.
- ② ‘학생 2’는 교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군.
- ③ ‘학생 3’은 개인이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군.
- ④ ‘학생 2’와 ‘학생 3’은 개인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그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군.
- ⑤ ‘학생 1’, ‘학생 2’, ‘학생 3’ 모두 교실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군.

[4 ~ 7] (가)는 활동지의 [활동 1]에 따라 학생들이 실시한 독서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찬성 1’이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활동지

[활동 1]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해 보자.

S.L. 파월의 소설 『50 대 50』에는 열다섯 살의 사춘기 소년 ‘길’이 등장한다. 부모의 과보호와 간섭에 갑갑함을 느끼던 ‘길’이 우연히 ‘주드’라는 형을 만나고, 이를 계기로 동물 실험과 생명 윤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주드’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길’은 불치병에 걸린 엄마를 살리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하는 아빠와 갈등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 ‘길’은 동물 실험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활동 2] 토론 내용을 참고하여 동물 실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보자.

(가)

**사회자** : 지난 시간에 S.L. 파월의 소설 『50 대 50』을 읽고 각자 느낀 점을 발표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입론을 하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1** : 동물 실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실험 과정에서 인간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실험이 끝나면 안락사를 당하게 됩니다. 또 안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 동물 실험을 한다고 하지만 동물은 인간과 생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동물 실험으로 개발된 의약품이라 해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약이 사람에게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사건이 많았습니다. 1957년에 독일의 제약회사 그뤼네타이 임신부의 입덧을 방지하기 위한 약으로 탈리도마이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당시 이 약을 복용한 여성들은 기형아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약품 개발 목적으로 동물들을 잔혹하게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

**반대 2** : 인간과 생체 구조가 비슷한 동물들도 있지 않나요?

**찬성 1** : 물론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같은 영장류는 인간과 생체 구조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생체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 동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개발한 약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1** : 동물 실험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 실험은 인간의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과 화장품, 삼푸, 방향제 같은 생활용품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먹는 약이나 여러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동물 실험을 통해 검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 동물 실험은 장기 이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기 기증자를 찾지 못해 죽어가 [B]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돼지 유전자에서 인간에게 부적합한 유전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물 실험은 질병 치료제나 여러 생활용품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 이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1** :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의약품이나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지 않나요?

**반대 1** : 물론 동물 실험 외에도 배양된 세포나 조직을 활용하거나, 컴퓨터 모의시험 등을 통해 의약품이나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 세포나 조직을 배양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시험이라도 그 독성과 부작용을 완벽하게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도 어차피 사람이 만든 기계이므로 불완전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동물 실험의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동물 실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

지난 국어 시간에 친구들과 『50 대 50』을 읽고 토론을 하였다. 토론의 논제는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였다. 토론에서 나는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내 생각을 친구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친구들의 의견에도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이번 토론은 평소 동물 실험에 대해 무관심했던 나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독서 토론이 끝난 후 삼촌께서 근무하시는 △△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실험실을 방문하였다. 삼촌께서는 동물 실험의 실상을 잘 모르는 나에게 매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또 동물들 중에는 마취도 하지 않고 실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런 동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삼촌의 말씀을 듣고 나니 실험용 동물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실험실 방문 후 내 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동물 보호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학교에서도 동물 실험의 실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캠페인에도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동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동물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4. (가)의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A] :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동물 실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 ② [A] : 자신의 직접 경험을 근거로 동물 실험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③ [B] :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동물 실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B] : 설문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⑤ [B] : 상대측에서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물 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 <보기>의 자료를 토론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그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자료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약 1.16%이고, 동물 실험의 결과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확률은 겨우 8%에 불과하다.

— ○○ 신문 기사에서 —

- ① 찬성 측에서 동물 실험이 비윤리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② 찬성 측에서 동물 실험을 거친 의약품이라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③ 찬성 측에서 인공 세포를 배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상대측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④ 반대 측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편리한 생활용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⑤ 반대 측에서 동물 실험의 대상이 된 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군.

6. 다음은 (나)를 작성하기 위한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문단**

- 독서 토론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언급해야겠어. .... ①

**2문단**

- 대학의 실험실 방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소개해야겠어. .... ②
- 실험용 동물들이 겪는 고통이 동물마다 차이가 있음을 강조해야겠어. .... ③

**3문단**

- 동물 보호를 위해 최근에 내가 했던 활동들을 소개해야겠어. .... ④
- 동물 보호와 관련된 나의 바람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⑤

7. (가)의 토론이 계속 진행된다고 할 때, 이어질 토론의 내용 중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것은? [3점]

— < 조 건 > —

-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입장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론을 시작한다.
-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힌다.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다.

- ① 아직도 동물 실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인간의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 ② 화장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전성 검증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 ③ 인류는 오래전부터 동물 실험을 해왔고, 그 결과도 만족할 만합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을 거쳐서 만든 의약품 중 일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엄격한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④ 동물은 오랫동안 인간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과욕 때문에 소중한 동물들이 지구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동물 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중한 동물들을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⑤ 동물 실험의 효용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들과 공존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살려 달라고 하소연하는 동물들의 절규가 멈춰질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8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

- 예상 독자: 시청 도로교통 담당자
- 글의 목적: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고 건의하기
- 글의 주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글의 자료: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

(나) 글의 초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홍길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 학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시청 도로교통 담당자님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교는 통학로가 차도와 인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고, 그 길마져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들로 막혀 있어서 학생들의 보행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지난주에 학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불법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교통사고가 몇 년째 ㉠ 되풀이해서 반복되다 보니, 부모님이 직접 자가용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태워주거나 자녀들이 승합차를 이용해 통학하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통학 차량의 증가로 학교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지다 보니, 인근 주민들도 출근길 교통 체증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 시청의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 정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인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영 주차장 만드는 일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 지역이 산비탈이다 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충분한 주차 공간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끝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우리 학교 앞까지 연장해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출근길 교통 체증도 해결할 수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나 지역 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청 도로교통 담당자님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디 ㉤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통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8. (가)를 참고하여 (나)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 ㄱ.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였다.
- ㄴ.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 ㄷ. 예상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통학로의 실태를 제시하였다.
- ㄹ. 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언급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 료 >

[A] 학부모 인터뷰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통학로가 위험해 늘 걱정이예요. 승합차를 태우려니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고, 아이를 직접 학교에 태워다 주려니 출근 시간이 빠듯합니다.”

[B] 신문 기사

스쿨존(School Zone)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이다. 그런데 최근 통학로에서 중·고등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도로교통 담당 부서에 스쿨존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C] 교통 잡지

아래의 표를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 담당 부서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하여 통학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50곳)	미설치(250곳)
교통사고 건수	1건	40건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 자료(작년 △△시 기준)>

- ① [A]를 활용하여 안전하지 못한 통학로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늘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② [B]를 활용하여 스쿨존의 적용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을 해결 방안에 추가해야겠어.
- ③ [C]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로 삼아야겠어.
- ④ [A]와 [B]를 활용하여 통학로 안전에 대한 불만이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해야겠어.
- ⑤ [B]와 [C]를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상 독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해야겠어.

10. (나)의 ㉠~㉤에 대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검 결과	수정 방안
①	㉠: 이어지는 단어와 의미가 중복된다.	→ ‘되풀이해서’를 삭제한다.
②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다.	→ ‘있습니다.’로 고친다.
③	㉢: 조사의 쓰임이 부적절하다.	→ ‘시청에’로 고친다.
④	㉣: 접속어의 사용이 부자연스럽다.	→ ‘그러면’으로 바꾼다.
⑤	㉤: 필요한 문장성분이 빠졌다.	→ ‘학생들이’를 첨가한다.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는 문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격 조사의 차이도 그중 하나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가’를, 목적격 조사로 ‘을/를’을, 관형격 조사로 ‘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음운 환경에 따라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가 오늘날보다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먼저 주격 조사는 ‘이’만 사용하였는데, 이때 ‘이’는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썼지만, ‘ㅣ’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면 ‘ㅣ’를 붙여 썼고, ‘ㅣ’로 끝나면 주격 조사를 표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름’에는 ‘이’가 붙고, ‘부터’에는 ‘ㅣ’가 붙는다. 그러나 ‘비’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주격 조사를 붙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목적격 조사는 ‘을/을/를/를’을 사용하였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 ‘을/을’, 모음으로 끝날 경우 ‘를/를’로 표기하였다. 또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을/를’로, 음성 모음이면 ‘을/를’로 표기하였다. 각각의 상황을 예로 들면, ‘ㅁ슴’에는 ‘을’이, ‘구름’에는 ‘을’이, ‘나’에는 ‘를’이, ‘너’에는 ‘를’이 붙는다.

[A] 끝으로 관형격 조사는 단어의 의미와 음운 환경에 따라 ‘의/의’와 ‘ㅅ’을 사용하였다. ‘의/의’는 앞에 오는 명사가 사람이나 동물일 때 사용하였는데,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의’를, 음성 모음일 때는 ‘의’를 사용하였다. ‘ㅅ’은 앞에 오는 명사가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거나,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닐 때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놈’은 사람이고 ‘·(아래아)’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의’가 붙고, ‘벌’은 동물이고 ‘ㅣ’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의’가 붙는다. 반면에 ‘부터’는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ㅅ’이 붙는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중에는 중세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
- ② 중세 국어에는 음운 환경에 따라 주격 조사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③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에서 사용된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더 다양하였다.
- ④ 중세 국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예외 없이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다.
- ⑤ 중세 국어에서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고 자음으로 끝나면 목적격 조사로 ‘을’을 사용하였다.

12.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조사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중세 국어] 거북 + ㉠ 터리 곤고  
[현대 국어] 거북의 털과 같고

[중세 국어] 하늘 + ㉡ 光明이 문득 번헝거늘  
[현대 국어] 하늘의 광명이 문득 흰하거늘

- |   | ㉠ | ㉡ |
|---|---|---|
| ① | 의 | ㅅ |
| ② | 익 | 익 |
| ③ | 의 | 익 |
| ④ | 익 | ㅅ |
| ⑤ | 의 | 의 |

13.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것은?

— < 보 기 > —

제10항 겹받침 ‘ㄸ’, ‘ㅌ’, ‘ㄴ’, ‘ㄹ’,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ㄸ,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ㄹ’은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ㄹ’,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ㄹ,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① ‘넓지’는 제10항에 의거하여 [넌찌]로 발음해야겠군.
- ② ‘ 옮겨’는 제11항에 의거하여 [ 옮겨]로 발음해야겠군.
- ③ ‘읽고’는 제11항에 의거하여 [일꼬]로 발음해야겠군.
- ④ ‘값이’는 제14항에 의거하여 [갑시]로 발음해야겠군.
- ⑤ ‘홀터’는 제14항에 의거하여 [홀터]로 발음해야겠군.

14. <보기>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접문장 속에서 하나의 ‘주어+서술어’ 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을 ‘절’이라고 한다. ‘절’은 전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안기거나 서로 이어지거나 한다.

(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

(나) 눈이 내린 마을은 고요했다.

㉢ ㉣

(다) 나는 그가 왔음을 몰랐다.

㉤

- ① (가)에서 ㉠과 ㉡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 ② (나)에서 ㉢은 ㉣의 주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 ③ (다)의 ㉤을 생략하면 전체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해진다.
- ④ (나)와 달리 (다)는 절이 전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안겨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15. <보기>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바치다 ㉠

① 반드시 내거나 물어야 할 돈을 가져다준다. ㉠ ㉠

받치다<sup>1</sup> ㉡

① 화 따위의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 ㉡ ㉡

받치다<sup>2</sup> ㉢

① 어떤 물건의 밑이나 안에 다른 물건을 대다. ㉢ ㉢

②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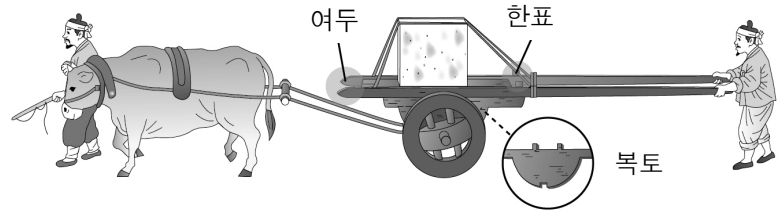
받치다 ㉤

① 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거르기 장치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 ㉤ ㉤

- ① ㉠: 매년 국가에 성실하게 세금을 바치고 있다.
- ② ㉡: 그는 설움에 받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 ③ ㉢: 그녀는 쟁반에 음료수 잔을 받치고 걸어갔다.
- ④ ㉣: 그가 우산을 받쳐 들고 거리를 거닐고 있다.
- ⑤ ㉤: 어머니께서 멸치젓을 체에 받쳐 놓았다.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조 임금이 애초 10년을 잡았던 수원 화성의 ㉠공사를 2년 7개월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약용이 발명한 ‘유형거(游衡車)’라는 특별한 수레 덕분이었다.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에 따르면 성을 쌓는 돌을 운반할 때 유형거를 이용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수레에 비해 유형거가 공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어느 수레는 짐을 나르는 ㉡기능에만 치우쳐 있는 것에 비해, 유형거는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짐을 싣는 작업도 지렛대의 원리를 반영하여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유형거는 무게를 견디고 분산시키는 바퀴와 복토, 짐을 싣는 곳인 차상, 수레 손잡이, 여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돌부리에 찢려 넣어 돌을 들어 올리는 여두(輿頭)는 소 혀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돌을 쉽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였고, 수레 손잡이는 끝부분을 점점 가늘고 둥글게 하여 손으로 쉽게 조작하도록 하였다. 이 손잡이 부분을 잡고 올리면 여두가 낮아져 돌을 쉽게 차상에 올려놓을 수 있고, 다시 손잡이를 내리면 돌이 손잡이 쪽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둘째, 유형거는 소에서 얻는 주동력 외에 보조 동력을 더할 수 있었다. 이는 수레가 흔들림에 따라 싣고 있는 돌이 차상 위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바퀴 축과 차상 사이에 설치한 ‘복토(伏兔)’라는 반원형의 장치 덕분이다. 상식적으로는 복토로 인해 짐을 싣는 부분이 높아져 수레가 흔들리는 만큼 무게 중심도 계속 변화하여 수레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복토를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조 동력을 정약용은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유형거가 움직일 때 수레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 돌은 정지 마찰력을 극복하고 견인줄에 의해 멈출 때까지 수레의 진행 방향으로 여두 부근까지 미끄러지는데, 이때 생긴 에너지는 수레에 추진력을 더한다. 그리고 수레 손잡이를 내리면 이번에는 돌이 다시 수레의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미끄러지다가 한표(限表)라고 하는 조그만 나무토막에 걸려 멈추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수레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하지만 바퀴 축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여두까지의 거리가 길고 한표까지의 거리는 짧은 것을 생각하면, 추진력에 비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은 작으므로 결국 수레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만큼 보조 동력을 얻는 셈이다. 실제 『화성성역의궤』에서도 1치(약 3cm)쯤 물러섰다가 1자(약 30cm) 정도 앞으로 나아간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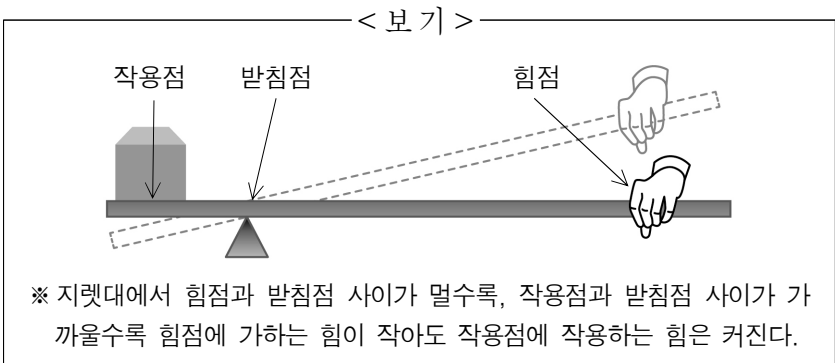
셋째, 유형거는 손잡이의 조작으로 수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기존의 수레는 거친 길을 달리면서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가 힘들었으나, 유형거는 수레를 운용하는 사람이 손에 익은 경험을 통해 유형거가 받는 충격을 감지하고 그 힘을 상쇄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완충 제어를 하였다. 언덕을 오를 때는 손잡이를 올리고 내려갈 때는 손잡이를 내림으로써 수레가 앞뒤로 흔들거리며 진동하는 현상을 제어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돌 때에는 왼쪽이 올라가므로 왼쪽 손잡이를 누른다. 또 갑자기 출발할 때는 손잡이를 올리고, 갑자기 정지할 때는 손잡이를 내리는 등 사람의 능동적인 손잡이 조작에 의해 좀더 안정적으로 수레를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유형거는 단순한 수레라고 할 수 없다. 유형거는 편리하게 짐을 실을 수 있는 지게차이자 운행 중 덩으로 얻을 수 있는 보조 동력까지 갖추고, 불안정한 수레의 움직임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완충 장치까지 갖춘 위대한 발명품이었다.

16.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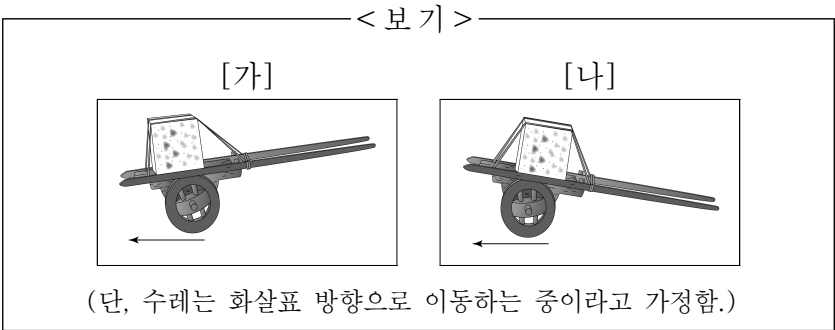
- ① 유형거의 우수성
  - 구조적 특징 분석을 중심으로
- ② 유형거의 미학적 특성
  - 복토의 운용상 장점을 중심으로
- ③ 효과적인 운반 수단이 된 유형거
  - 실제 운용한 사람의 경험을 중심으로
- ④ 수레 발달의 역사
  - 기존 수레와 유형거의 차이를 중심으로
- ⑤ 유형거의 변화 과정
  - 유형거의 장단점과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17. <보기>를 활용하여 ‘유형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수레 손잡이 쪽에 한표를 두어 힘점에 가해지는 힘을 늘리려 했겠군.
- ② 손잡이는 되도록 길게 만들어 작용점에 더 큰 힘이 작용하도록 의도했겠군.
- ③ 여두와 바퀴 축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돌을 싣도록 했겠군.
- ④ 여두를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 작용점에 작용하는 힘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했겠군.
- ⑤ 유형거의 여두는 작용점으로, 바퀴 축은 반침점으로, 손잡이는 힘점으로 기능하도록 설계했겠군.

18.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돌은 수레 진행 방향으로 미끄러지며 추진력을 만들어 낼 것이다.
- ② [나]에서 돌은 수레 진행 역방향으로 미끄러지고, 힘도 역방향으로 더해질 것이다.
- ③ [가], [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레의 무게 중심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④ [가], [나] 과정에서 돌이 미끄러지는 까닭은 정지 마찰력을 극복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⑤ [가], [나] 과정을 반복한다면 수레는 운행 중 보조 동력을 꾸준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교사의 질문> 유형거가 평지에서 급출발을 하여 언덕길을 오른 후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았다고 할 때, 사람은 유형거의 손잡이를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요?

<학생의 답변> 급출발 시에 손잡이를 올리고, 언덕길에서 손잡이를 ( ㉠ ), 갈림길에서 ( ㉡ ) 손잡이를 ( ㉢ ) 합니다.

- |   | ㉠    | ㉡   | ㉢   |
|---|------|-----|-----|
| ① | 올린 후 | 오른쪽 | 눌러야 |
| ② | 올린 후 | 오른쪽 | 올려야 |
| ③ | 올린 후 | 왼쪽  | 눌러야 |
| ④ | 내린 후 | 오른쪽 | 눌러야 |
| ⑤ | 내린 후 | 왼쪽  | 올려야 |

20.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의 동음이의어가 아닌 것은?

- ① ㉠: 정부는 자국 공사(公使)를 소환하려 하였다.
- ② ㉡: 그는 나무를 깎는 기능(技能)을 연마하였다.
- ③ ㉢: 지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運用)해야 한다.
- ④ ㉣: 경기장 입구는 입장(入場)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 ⑤ ㉤: 사건을 조작(造作)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려 했다.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업은 도입한 뒤로 군대의 형편을 살피고 병사들을 훈련시켰는데, 달아난 호국 장수들이 다시 돌아와 염탐했다. 이것을 안 경업은 크게 노하여 군대를 내어

“되놈들을 잡아들이라!”

외치니, 군사들이 호국 군대의 진을 무너뜨리고 남은 호병들을 잡아왔다. 경업이 호병들을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A] “내 몇 년 전 가달 왕에게 항복받고 너희 나라를 지켜 주었을 때, 너희는 은덕을 잊지 않겠다며 만세불망비도 세우지 않았느냐? 그걸 벌써 잊고 도리어 천조를 배반하고 우리나라를 침범코자 하니, 너희 같은 무리는 마땅히 죽여 분을 씻을 것이로다. 다만 너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돌려보내니, 빨리 돌아가 너희 땅을 지키고 다시 분수에 넘치는 짓은 생각도 하지 말라. 만일 다시 두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 없앨 것이다.”

경업이 포로들을 끌어 내치니, 호병들이 쥐 숨듯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대장과 군졸들에게 일의 전말을 보고했다. 이를 들은 호국 장수들이 크게 분개했다.

“임경업이 교묘한 말로 우리 호국을 욕되게 하고 병사들의 마음을 혼드는구나. 내 맹세코 경업을 죽여 오늘의 수치를 씻으리라.”

호국 장수는 곧바로 정예 병사 7천 명을 뽑아 조선으로 향했다. 군사들이 압록강에 이르러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치더니, 호국 장수가 강 건너 조선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조선국 의주 부윤 임경업은 들으라. 너는 한갓 어린아이로서 어찌 간사한 말로 병사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느냐? 네가 재주가 있거든 나의 철퇴를 막아 보아라. 죽기가 두렵거든 항복하여 목숨을 아끼거라.”

이 말을 경업이 듣고 크게 분노해 급히 배를 띄워 물을 건넜다. 경업이 말에 올라 청룡검을 비껴들고 호국 진영에 달려들어 거칠 것 없이 좌우로 칼을 휘두르니, 적병들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 날리듯 떨어졌다. 호국 군사들이 감히 맞서지 못해 급히 달아나니, 이때 서로 짓밟으며 물에 빠져 죽는 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경업이 홀로 출전하여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니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랐다. 의주 군졸들이 장군의 용맹을 감탄해 서로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렀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압록강 가에는 적군의 시체가 흘러 산 같이 쌓였고, 피는 흘러 내를 이루었다.

적병이 돌아가 호국 왕에게 패한 까닭을 보고하니, 왕이 몹시 분개해 다시 군대를 일으켜 원수 갚을 일을 의논했다. 경업이 의주 감영으로 돌아와 승전한 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임금이 보고 크게 기뻐했다. 경업은 머지않아 호국이 다시 침범하지 않을까 근심했는데, 조정의 신하들은 전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다.

이때 호국 왕은 경업에게 패한 뒤로 분한 기분을 참지 못하더니, 다시 장수들을 모아 조선을 침공할 준비를 했다.

“여기서 의주까지 가려면 며칠이나 걸리는가?”

호왕의 말에 좌우에서 말했다.

“열하루 길입니다. 다만 국경의 한쪽은 갈대 수풀이요, 다른 한쪽은 압록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강을 건너 기마군으로 승부하고자 하면 수만 군졸이 진을 칠 곳이 없고, 또 자칫 군사가 패하면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기이한 계교를 내어 경업을

먼저 갠 뒤에야 군사를 내는 게 좋을까 하나이다.”

장수들의 의논을 들은 호왕이 이를 옳게 여겨 용골대 장군을 선봉장으로 삼고 지시했다.

“너는 수만 명 군사를 거느려 배를 띄워라. 가만히 황해를 건너 조선을 치면 미처 군대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은 의주에서도 알지 못할 것이니, 그 사이에 한양을 급습하면 항복받기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하물며 이 일을 성공하면 당연히 경업도 사로잡지 않겠느냐?”

용골대가 명령을 받고 군사를 뽑아 훈련을 시작했다.

< 중략 >

용골대는 백성의 집을 헐어 얻은 나무 기둥들로 뗏목을 엮어 강화도로 침입했는데, 강화 유수 김경징은 술만 마시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호국군에 꿈쩍없이 당했다.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포로로 잡은 용골대는 송과 들판에 진을 치고 큰 소리로,

“어서 빨리 항복하지 아니하면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가만 두지 않겠다.”

라며 으름장을 부렸다.

이때 임금은 모든 대신과 병사를 거느리고 남한산성에서 외로이 성을 지키면서 눈물만 비 오듯 흘릴 뿐이었다. 도원수 김자점은 달리 방법도 없이 성문 밖에 진을 치고 방어만 하고 있었는데, 호병들의 북소리에 놀라 진이 무너지며 군사들이 무수히 죽었다. 어쩔 수 없이 소수의 군사만 산성 밖에 남기고 산성 안으로 들어와 지켰지만, 군량미도 바닥나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이때 용골대가 큰 소리로 외쳤다.

[B] “너희가 끝내 항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서 겨울을 나고 여름 보리를 지어 먹고 있을 테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려 하느냐? 어서 빨리 나와 항복하여라.”

용골대가 산봉우리에 올라 산성을 굽어보며 외치는 소리가 산을 울리니, 임금이 듣고는 하늘을 보고 통곡하며 말했다.

㉔“안에는 훌륭한 장수가 없고 밖에는 강적이 있으니 외로운 산성을 어찌 보전하며, 또한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라.”

임금이 대신들과 항복할 것을 의논하니, 한 신하가 말했다.

“대왕마마!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 다 적진에 계시니 나라에 이런 망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항복하시어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구하시며, 사직을 보전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한 신하가 앞에 나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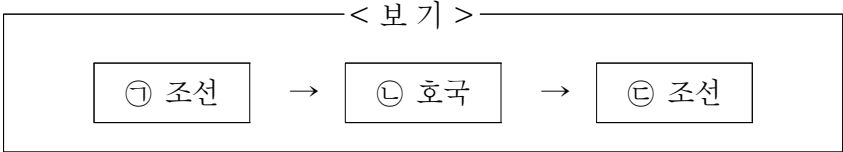
“옛말에 일렀으되,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될 수 없다 했사오니, 어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 욕을 당하리이까? 죽기를 무릅쓰고 성을 지키면 임경업이 소식을 듣고 마땅히 올라와 오랑캐를 물리치고 적장의 항복을 받을 것이옵니다. 그러면 대왕마마께서는 자연히 욕을 면할 것입니다.” “경들은 답답한 소리를 하지 말라. 길이 막혀 사람을 보낼 수 없으니 경업이 어찌 이 사정을 알겠는가? 지금 사정이 이렇듯 급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항복하는 수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은 입을 다물라.”

임금이 이 말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는 듯했다.

— 작자 미상, 「임경업전」 —



21. 윗글의 공간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하였을 때,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임경업은 호국 장수들이 아군을 염탐한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한다.
- ② ㉠에서 임경업과 달리 조정의 신하들은 호국이 다시 침범할 것이라는 염려를 하지 않는다.
- ③ ㉡에서 호국 왕은 임경업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해 한양을 급습하는 계교를 꾸민다.
- ④ ㉢에서 신하들은 호국의 침략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임경업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 ⑤ ㉢에서 임경업이 남한산성의 상황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임금은 항복할 것을 결심한다.

22.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상대방의 불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회유하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 질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③ [A]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고, [B]는 상대방의 행동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며 상대방을 시험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드러내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23. ㉡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② 수구초심(首丘初心)

③ 오월동주(吳越同舟)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⑤ 호가호위(狐假虎威)

2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임경업은 인조 때 중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장수로서 의주에 주둔하며 청의 주요한 공격로를 수비하였다. 그러나 현실보다 명분에 집착했던 조정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에 무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강력한 실권자였던 김자점에 의해 임경업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임경업전」은 이러한 임경업의 생애를 바탕으로, 좌절된 영웅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배 계층에 대한 분노, 청나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부심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 ① 의주 부윤 임경업의 활약은 실존 인물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로군.
- ② 단숨에 호국 진영을 제압하는 임경업의 모습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려 하였군.
- ③ 임경업이 용골대의 침략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민중들이 안타까움을 느꼈겠군.
- ④ 강력한 실권자였던 김자점을 호국의 침입에 무기력하게 대응한 인물로 형상화하여 지배 계층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조선과 호국에서 임경업의 능력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린 데는 명분만 중시하던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군.

[25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시를 통해 삶 속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그중에는 특정 시대나 사회, 혹은 특정 계층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한다. 시 속 전형적 인물은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난다. 어떤 시에서는 화자 자신이 전형적 인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시에서는 화자가 관찰한 대상이 전형적 인물이 되기도 한다. 전자는 화자가 체험한 현실을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로 직접 전달할 수 있고, 후자는 시적 대상이 처한 현실과 그의 정서를 관찰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

또한 시는 전형적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보여 줄 수도 있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파괴해진 농촌의 상황을 보여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독자는 전형적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나)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sap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sap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sap을 씻고」 -

(다)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 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sap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건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

25.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화자가 전형적 인물이 되어, (다)는 화자가 전형적 인물을 관찰하여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화자가 전형적 인물을 관찰하여, (다)는 화자가 전형적 인물이 되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 모두 화자가 전형적 인물을 관찰하여 보여 주는 방식으로 현실을 담아내고 있다.
- ④ (나)와 (다) 모두 화자가 전형적 인물이 되어 정서를 직접 표출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나)와 (다) 모두 전형적 인물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26.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슬픔도 퍼다 버리’는 모습에서 현실에 대한 고뇌를 덜어내려는 마음을 읽을 수 있군.
- ②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는 모습에서 현실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샛강 바닥 썩은 물’에서 인물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에서 인물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군.
- ⑤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군.

27. (나)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접속어로 시상을 전환하여 시적 의미를 확대한다.
- ②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한다.
- ③ 유사한 속성의 자연물에 빗대어 인물의 처지를 부각한다.
- ④ 대조적인 장면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인물의 상황 변화를 보여준다.

28. (다)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엄마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불어오’는 것으로, 이들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으로 볼 수 있다.
- ② ㉡: ‘제자리에 선 채’ ‘좀 더 바라보던’ 것으로, 아버지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③ ㉢: ‘때 묻’고 ‘쉽게 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아버지의 실업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④ ㉣: 가족이 다 같이 함께하기에는 ‘너무 좁’은 곳으로, 가족의 힘든 상황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 ‘한 걸음 늦게 따라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가장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9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정노동 종사자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특정한 감정 표현을 요구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감정노동은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한 감정 상태를 연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감정관리 활동을 일컫는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 특성, 직무 특성, 조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공감적 배려가 있다. 이것은 타인의 감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공감적 배려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제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직무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직무 다양성이 있다. 이것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활용해야 하는 기능이나 재능의 복잡성과 관련된다. 직무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표현해야 할 감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서비스 업무에서는 고객의 유형이 다양하면 직무 다양성이 높아진다. 조직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원이 있다. 이것은 상급자, 동료 등 조직 내에서 대인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서 얻는 인정이나 조언, 물질적 지원 등의 긍정적인 뒷받침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원이 풍부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고 업무 만족도는 높다.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의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감정노동의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실제 직무 수행 장면에서 나타나는 감정노동 양상 중 대표적인 것으로 표면 행위와 내면 행위 두 가지가 있다. 조직이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특정한 감정 표현을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이라고 하는데, ㉠ 표면 행위는 실제로 느끼지 않는 감정을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에 맞추어 표현하는 것이다. ㉡ 내면 행위는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을 내면화하여 실제 감정으로 느끼면서 표현하는 것이다. 내면 행위는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표면 행위를 할 때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위장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감정 부조화 상태가 되면 수치심이나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된다. 감정 부조화가 지속되면 감정노동 종사자는 스스로를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며 거짓 자아를 느끼게 되고, 심할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 증세를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감정 부조화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감정조절 전략을 구사한다. 우선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 감정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를 한다. 그 후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적절한 감정조절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감정조절 전략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능동 전략은 부정적 감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왜 이러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과거 유사한 상황을 떠올리거나 문제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보면서 자신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 나아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 상황을 개선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자꾸 짜증이 나는 이유가 뭘까?’,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잘 극복했으니 이번에도 잘 이겨내면 좋은 경험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 예에 해당한다.

둘째, 회피·분산 전략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들을 떠올려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별것 아닐 거야.’, ‘불쾌한 감정은 금방 지나갈 거야.’라고 생각하며 부정적 상황을 외면하거나, 부정적인 상황과 상관없는 즐거운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전략을 자주 쓰다 보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의 문제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셋째, 지지 추구 전략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아 개념과 자존감을 안정되게 유지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전략이다. 친밀한 사람을 만나 자기 감정을 토로하여 공감을 얻거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 전략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다. 세 가지 감정조절 전략 중 회피·분산 전략과 지지 추구 전략은 일시적인 감정 조절에는 유용한 전략이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궁극적인 감정조절을 위해서는 능동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밑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감정조절이 불가능한 상황
- ② 감정노동의 개념과 대표적 양상
- ③ 감정조절 전략이 구사되는 과정
- ④ 감정 부조화의 지속이 초래하는 결과
- ⑤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감정조절 전략

30. [A]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의의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대상의 변화 과정을 언급한 뒤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 ③ 대상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 항목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④ 대상의 구성 요소를 나열한 후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⑤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31. 밑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정조절 전략 중에는 일시적인 감정조절에 유용한 전략도 있군.
- ② 주의를 분산시키는 감정조절 전략을 구사하면 궁극적인 감정조절이 가능하겠군.
- ③ 공감적 배려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감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군.
- ④ 다른 생각들을 떠올리거나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감정조절을 할 수 있겠군.
- ⑤ 상급자나 동료들의 인정이나 조언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특성에 해당하군.

32. <보기>를 참고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감정노동에는 여러 측면의 감정이 작용한다.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 외적으로 표현된 감정, 그리고 솔직한 내면의 감정이 그것이다.

- ① ㉠은 내면의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 ② ㉠은 내면의 감정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이 다르다.
- ③ ㉡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에 맞춰 내면의 감정을 위장한다.
- ④ ㉡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과 외적으로 표현된 감정이 다르다.
- ⑤ ㉡은 외적으로 표현된 감정에 맞게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바꾸는 것이다.

3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영희는 A호텔에서 안내 업무를 맡고 있다. ㉠영희가 맡은 업무는 손님들의 나이나 성향이 다양하여 힘든 점이 많다. ㉡하지만 지배인부터 동료 직원들까지 자신을 존중하고 지원해 주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있다. ㉢가끔 영희는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는 손님도 웃으며 맞아야 하는 것에 짜증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런 순간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손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였다. ㉣슬픈 일이 있는데도 손님을 대하며 밝은 표정을 보여야 할 때는 우울함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를 썼다. ㉤그래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오늘 친구랑 무슨 영화를 보러 갈까?’와 같이 좋은 일들을 떠올리면 기분이 나아졌다.

- ① ㉠: 직무 다양성이 높아서 힘든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군.
- ② ㉡: 사회적 지원이 풍부하여 업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군.
- ③ ㉢: 능동 전략을 사용하여 부정적 감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군.
- ④ ㉣: 현재의 상황을 외면하여 감정 부조화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 하는군.
- ⑤ ㉤: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전략을 활용하였군.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눈 덮인 밤길을 역구와 큰 키의 사내(형사)가 동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역구가 6·25 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득철을 우연히 만나 술자리 끝에 그를 살해하고, 부친의 산소 곁에서 죽을 심산으로 고향으로 가는 길임이 드러난다.

옆 산 소나무 위에 앉았던 눈무더기가 쏘르르 쏟아져 내렸다. 마치 자기 무게를 그렇게 나약한 소나무가지 위에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이……. 그때 좀 먼 곳에서 딱 우지끈 소나무가지 부러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러자 이때 역구가 느닷없이 키 큰 사내의 앞을 막아 서며, “선생, 난 득수 동생놈을, 그 김득철일 어제 죽였던 말이오. 이렇게 온통 눈이 내리는데 그까짓 걸 숨겨 뭘 하겠소. 선생은 아주 추악한, 사람을 몇씩이나 죽인 무서운 놈과 함께 서 있는 거유. 자, 날 어떻게 하겠수?”

그러면서 한 걸음 큰 키의 사내 앞으로 다가섰다.

㉠큰 키의 사내는 후딱 몇 걸음 물러서며 오버 주머니에 오른손을 껌싸게 넣었다.

그의 시선은 역구가 양복 윗주머니의 볼록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아까두 말했지만, 그 술집에서 난 놈에게 이주격됐죠. 그래 자넌 분명 우리 아버지 잡았겠다? ㉡그래 별초를 매년 해왔 다구? 아 고마워, 고마워…… 하고 말입네다. 헌데 그 득철일 난 그날 밤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글썄, 나두 그걸 모르겠수 다. 왜 내가 그 득철일 죽였는지…….”

여직 들어 보지 못한 맥빠진, 그렇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큰 키의 사내는 묵묵히 역구의 얼굴을 뜯어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역구가 큰 키의 사내 앞에서 몸을 돌리며 저쪽 산등 성이를 가리켜 보였다.

“바루 저 산에 가친 산소가 있답니다.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든군요.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무덤의 눈을 쳐드려야죠. 그리고 술을 한잔 올릴랍니다. 술을 올리면서 가친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두 눈이 펄 내렸구나, 눈 온 짐작으루 봐선 내년두 분명 풍년이겠다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폭 한숨을 몰아쉬시겠죠. ㉢그 한숨 소릴 들으면서 가친 옆에 누워야죠. 이제 가친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산으로 향한 생눈길을 몇 걸음 건다가 다시 이쪽을 향해, “참, 바루 저기 보이는 저 모퉁일 돌아감 거기가 바루 와야랍니다. 가서서 우선 구장네 집을 찾아 몸을 녹이시우.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폭 몸을 녹이셔. 자, 그럼 난…….”

산을 향해 생눈길을 걸어가는 그의 언 바짓가랑이가 서걱서걱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흰 곰처럼 산을 향해 걷는 역구의 을씨년스럽고 초라한 뒷모습에 눈을 주고 선 큰 키의 사내는 한참이나 그렇게 묵묵히 섰다가 문득 큰길 아래로 내려서서 역구 쪽으로 따라가며,

“노—형, 잠깐!”

말소리 속에 강인한 무엇인가 깔려 있는 듯싶었다.

언 바짓가랑이를 데걱거리며 걸어가던 역구가 주춤 멈춰서 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큰 키의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갔다. 오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움켜진 그런 자세였다.

역구가 짐짓 몸을 추스르며 자기에게로 다가서는 큰 키의 사

내 거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억구 앞에 멈춰 선 큰 키의 사내가 할 말을 잊은 듯 멍청하  
니 고개를 위로 향했다. 고개를 약간 젓히고 입을 헤— 벌린  
채. 그의 이러한 생각하는 표정 위에 눈이 내려앉고 있었다.

—— 그날 밤 난 생물 선생네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두 낮은 담이었어. 난 거꾸 담을 돌고만 있었지. 만  
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담이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걸 들어가면 그건 나쁜 짓이  
니까, 그건 도둑놈이지.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A] 무서웠던 거야. 나는 담만 돌며 생각했지. 오늘 갑자기 생물  
선생네 무서운 개를 얻어다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또, 어쩌면  
선생이 설사 나서 변소에 웅크려 앉았을지도 모른다는 지레  
경계를……. 그리고 남의 담을 넘는다는 건 분명 나쁜 짓이라  
고……. 무서웠던 거야. 결국 난 새끼토끼를 구할 생각을 거두  
고 담만 돌다 돌아오고 말았지.

“아니 선생, 담을 불러 놓군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슈?”  
억구가 말했다.

—— 나쁜 놈이 되기가 싫었던 거야. 담을 넘는다는 건…….  
큰 키의 사내가 한걸음 물러섰다. 생각하는 표정을 거두지 못  
한 채.

산 속 소나무 위에서 다시 눈무더기가 췌르르 쏟아져 내렸다.  
마치 그 연약한 나뭇가지 위에선, 그리고 거꾸 내려 쌓이고 있  
는 눈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

억구가 다시 다그쳤다.

“선생, 발이 시립니다. 내가 여기 얼어붙어야 좋겠소? 원 별  
양반도……. 자, 그럼…….”

억구가 다시 몸을 돌려 산을 향했다. ㉠ 그가 몸을 돌리는 순  
간 그의 깡뚱한 양복 윗주머니에 삐죽하니 2홉들이 소주병 노  
란 덮개가 드러나 보였다.

순간 망설이던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어떤 결의의 빛이 스쳤다.  
“아, 노형, 잠깐!”

억구가 바짓가랑이를 데적거리며 다시 몸을 돌렸다.

순간 큰 키의 사내는 오른쪽 오버 주머니에서 서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쑥 억구 앞으로 내밀었다.

—— 나는 담만 돌았지. 무서웠던 거야.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 억구가 물었다.

“예, 드리는 겁니다. 아까 두 개비를 피웠으니까 꼭 열여덟 개  
비가 남아 있을 겁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올핸 담배  
도 풍년이겠쬬.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담배는 하루에 꼭 한  
개씩만 피우셔야 합니다.”

㉡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얹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담배 한 갑을 받아 든 채 멍청히 서 있는 억구  
에게서 몸을 돌려 마치 눈에 홀린 사람처럼 비척비척 큰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 잔기침을 몇 번 쿡쿡 하면서.

걸어가는 그의 등뒤로 마치 울음 같은 억구의 외침이 따랐다.  
“하루에 꼭 한 개씩 피우라구요? 꼭, 한 개씩, 피, 우, 라, 구  
요?”

그러면서 그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ㅎ ㅎ ㅎ ㅎ ㅎ ㅎ ㅎ…….

눈 덮인 산 속, 아직 눈 조용히 비껴 내리고 있는 밤이었다.

— 전상국, 「동행」 —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상황의 현장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대화와 내적 독백을 통하여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의 시점을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⑤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대비하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35. <보기>와 [A]를 참고하여 ‘큰 키의 사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큰 키의 사내’는 학창 시절에 새끼 토끼를 잡게 된다. 생  
물 선생은 그 새끼 토끼를 다음날 해부하고 고기는 술안주로  
삼켰다고 하였다. 그날 밤, 새끼 토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들던 어미 토끼의 눈과 끔찍하게 해부될 새끼 토끼  
를 떠올리던 ‘큰 키의 사내’는 고민 끝에 새끼 토끼를 구하러  
가지만 생물 선생네 담을 넘지 못해 새끼 토끼를 구할 수 없  
었다.

- ① ‘억구’가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 ② ‘억구’를 ‘새끼 토끼’와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했던 과거 경험을 부정하고 있다.
- ④ ‘억구’의 처지가 ‘어미 토끼’를 닮아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 ⑤ ‘어미 토끼’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지우지 못해 후회하고 있다.

3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큰 키의 사내’가 범행을 털어놓는 ‘억구’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아버지의 산소 벌초를 매년 한 것에 대해 ‘억구’가 득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과거와 달리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억구’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 아버지의 산소에 술을 올리고 그 옆에 눕겠다는 ‘억구’의 말이 사실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 미소가 번지는 표정을 통해 ‘큰 키의 사내’가 ‘억구’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만족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동행」은 동일한 여정 속의 두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전쟁이 남긴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과 우연히 그를 만나 눈길을 동행하게 되는 인물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들을 통해 작가는 전쟁이 남긴 아픔을 치유하는 인간애를 보이고 있다.

- ① ‘억구’와 ‘큰 키의 사내’는 전쟁의 상흔으로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동일한 여정을 지니고 있군.
- ② ‘억구’가 ‘큰 키의 사내’에게 구장네 집을 알려 주는 모습에서 쫓기는 자로서의 다급함을 느낄 수 있군.
- ③ ‘억구’가 자신의 범행을 ‘큰 키의 사내’에게 털어놓은 것은 밤길을 동행하며 느낀 인간적인 연민 때문이로군.
- ④ ‘큰 키의 사내’가 ‘억구’에게 담배를 하루에 한 개씩만 피우라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엿볼 수 있군.
- ⑤ ‘큰 키의 사내’를 뒤로하고 떠나가는 ‘억구’의 을씨년스러운 뒷모습에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군.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규직 근로자에서부터 단시간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까지 근로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엄연한 근로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 조건을 ㉠ 명시(明示)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 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약속은 구두로 하기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근로 계약서에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일할 장소, 해야 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임금과 임금을 받는 날 등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한다. 근로 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다. 또 1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1주간의 정해진 근로 일수대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4인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50%를 ㉡ 가산(加算)하여 받을 수 있으며, 1년간 정해진 근로 일수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1주간의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유급 주휴일,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 교부(交附)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을 하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노무직 근로자이거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도 100%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일, 주,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고, 현물이나 상품권은 안 되며,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임금 체불이 된다. 대표적인 임금 체불 사례를 보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약속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였으나 갑자기 일이 없어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 그 이유가 사업주에게 있다면 4인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임금을 받지 못하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관련 내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일정 금액의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연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는 해고 수당을 ㉣ 청구(請求)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본인의 ㉤ 과실(過失)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기분이 나쁠 정도의 폭언이나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또는 신체적인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므로 고용노동부나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유급 주휴일: 1주간의 정해진 근로 일수대로 일하였을 때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

\* 연차 유급 휴가: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3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아르바이트는 근로자임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② 근로 계약이란 근로 조건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③ 1주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 ④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관련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39. 윗글을 읽은 후 추가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가 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 ②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③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업주에게 체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④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단순노무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⑤ 임금이 체불된 경우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40 ~ 41] <보기>는 직원이 10여 명인 ◇◇ 식당에 근무하게 된 ‘박○○’ 군의 근로 계약서이다.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연소 근로자 근로 계약서

김△△(이하 “사업주”라 함)와 박○○(이하 “근로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계약 기간: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20일까지

2. 근무 장소: ◇◇ 식당 홀

3. 업무의 내용: 홀 서빙 및 청소

4. 근로 시간/휴게 시간: 16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㉞

5. 근무일/휴일: 매주 5일 근무 / 매주 토, 일요일 ……㉞

6. 임금

– 시간급: 7,530원 ……㉞

– 임금 지급일: 매월 2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 방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    )

7.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㉞

8. 사회보험 가입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2018년    4월    25일

(사업주) 사업체명: ◇◇ 식당(전화: xxx-xxxx-xxxx)

주 소: □□시 □□구 □□로 48

대표자: 김△△ (서명)

(근로자) 주 소: □□시 □□구 □□로 28

연락처: xxx-xxxx-xxxx

성 명: 박○○ (서명)

… ㉞

4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일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㉞에는 30분 이상의 쉬는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 ② ㉞의 내용대로 1주일을 정해진 근로 일수대로 근무하였다면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 ③ ㉞에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 이상을 명시해야 한다.
  - ④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일 경우 ㉞처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㉞에서 내용의 확인 및 서명은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41. 다음의 ‘박○○’ 군에게 해 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박○○ 군은 5월 둘째 주 월요일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그 주 토요일에는 일손이 모자라 근무하였다. 그 후 서빙 중 본인의 실수로 화상을 입었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다쳤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친 상태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박○○ 군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 ①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가산된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근로 기간 중에 해고당한 근로자이므로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업무 수행 중이지만 본인 과실로 다쳤으므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주 사정으로 근무일에 일하지 못하고 돌아왔으므로 휴업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42. ㉠ ~ ㉞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체를 환히 꿰뚫어 봄
- ② ㉡: 본래의 수에 더하여 셈함
- ③ ㉢: 서류나 물건을 내어 줌
- ④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
- ⑤ ㉤: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 계랑 —

(나)

동풍(東風)이 건듯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쌀쌀하고 적막한데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 쫓아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 내어 임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꽃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綠陰)이 깔렸는데  
㉠ 비단 휘장 안은 쓸쓸하고 수놓은 장막은 텅 비어 있다  
연꽃을 수놓은 휘장을 걷고 공작이 그려진 병풍을 두르니  
가뜩이나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그리도 길던가  
㉡ 원앙이 그려진 비단을 베어 놓고 오색실을 풀어 내어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숨쉴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산호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곳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 리(千里) 만 리(萬里) 먼 길을 누가 찾아갈까  
가거든 열어 두고 나를 본 듯 반기실까

— 정철, 「사미인곡」 —

(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두 분(盆)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다래헌(茶來軒)으로 옮겨 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 준 것이다. ㉢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 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구해 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 애들을 위해 실내 온도를 내리곤 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듯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청했었다. 우리 다래헌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초를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 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별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우었다.

아차! 이때에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별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별에 늘어져 있을 난초 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 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 집착이 괴로운 것일.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했다. 밖에 불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 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 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 법정, 「무소유」 —

\* 산철: 스님들이 거처를 떠나 수행하는 기간.

43.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②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고전 시가에는 헤어진 임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가)처럼 여성 작자가 자신이 실제 겪었던 이별의 상황과 아픔을 진솔하게 표현한 노래도 있으며, (나)처럼 남성인 사대부가 임금의 곁에서 떨어져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별한 여인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노래도 있다.

- ① (가)의 ‘임’은 실제 경험 속 연인으로, (나)의 ‘임’은 당시의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군.
- ② (가)와 달리, (나)는 작가 자신을 이별한 여인에 빗대어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군.
- ③ (가)와 (나)는 모두 ‘천 리’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 떨어져 있는 현재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군.
- ④ (가)의 ‘이화우’, (나)의 ‘산’과 ‘구름’은 임에 대한 변함없는 화자의 사랑을 반영한 자연물이군.
- ⑤ (가)는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본 듯 반기실까’를 통해 여전히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45.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빈 ‘휘장’과 ‘장막’으로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웃’을 짓는 과정으로 화자의 지극한 정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그 애들’이라는 의인화로 대상에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운허 노사’의 가르침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⑤ ㉤: ‘난초’를 통해 화자가 깨달은 바를 제시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